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6월 21일 (제79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즐거운 일주일

지인이 보내준 재미있는 글이 있어 공유하고 싶어 적어본다. 아마 인터넷 상의 글인 듯싶다. 제목은 '넌 재밌는 일주일'이다.
월: 원래 웃음이 많으면 건강에 좋고
화: 화가 나도 웃으면 기분이 풀리고
수: 수시로 웃으면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목: 목이 쉬도록 소리 내어 웃으면 주위가 즐겁고
금: 금방 웃었는데 또 웃으면 기쁨이 두 배,
토: 토라진 얼굴보다 웃는 얼굴이 예쁜 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일: 일상에 지쳐 힘들더라도 나와 주위사람을 위해 웃어준다면 우리 삶이 100% 장수+행복=천국생활!
전쟁하듯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꼭 들려주고픈 이야기다. 이것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 된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려고 다들 난리인데, 돈 안들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많이 웃으면 된다. 웃으면 엔돌핀이 생성되는데, 이 엔돌핀이 면역력을 높인단다. 또 많이 웃으면 장이 아플 때가 있다. 이것은 장이 운동되었다는 뜻이고, 많이 웃었더니 배가 고플 때도 있는데 이는 소화가 촉진되었다는 뜻이다. 이렇듯 웃으면 신체 모든 기능이 좋아진다. '일소일소(一笑一少)'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미국의 100대 기업 대부분은 웃음경영에 힘쓴다고 한다. 그 결과 회사 분위기가 좋아져서 성과가 커지고 직원들 간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한다. 성공의 대표기업이 '구글'이다.
인간은 사는 동안 평균 50만 번쯤 웃는다. 성인은 하루 평균 8번 웃고, 어린이는 400번쯤 웃는다. 성인이 되면서 웃음이 급격히 없어진다는 뜻이다. 사는 게 힘들니까, 사는 게 재미없으니까 웃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얼굴을 펴야 인생도 편다. 웃으면 복이 온다. 과안대소 소문만복래(破顔大笑 笑門萬福來)!

문제를 보지 말고 방법을 찾아라

블레셋 군대와 마주한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는 기णी가 장대한 골리앗에 그만 넋이 빠져 버렸다. 두려움을 넘어 공포가 자리 잡으니 싸울 생각은 애초에 물 건너간 일이 되고 말았다(삼상17:4~11). 이처럼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생각을 멈추게 한다. 따라서 먼저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단초가 된다. 문제를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문제에 대한 두려움에 애초부터 문제해결보다는 추후 책임회피를 위해 핑계거리만 찾느라 바쁜 타입이 있는가 하면,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기에 골몰하는 타입이 있다. 일단 문제는 터진 것이기에 이를 되돌릴 방

운하며 시시비비 쟁론에 휩싸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런 것들은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한 뒤에 따져도 늦지 않다. 매스컴이 키운 공포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막아 많은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가고, 공공시설에는 사람들이 찾질 않고, 경제 활동은 눈에 띄게 위축되니 그 여파로 해외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메르스'라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바로 두려움이 낳은 결과다. 두려움은 인류 최대의 적이다. 악한 마귀가 가장 흔히 쓰는 술책이 바로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심는 것이다. 두려움이 앞서면 모든 생각이 멈추고, 모든 의욕이 사라지기 때

기빠할 일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의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군의 울무에서와 극한 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니 그 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과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니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앞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니" (시 91:2~7).
하나님은 문제를 보시지 않는다. 바로 우



기도하는 국가와 교회, 기업과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법은 없다. 이제 해야 할 일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보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이 나라는 메르스(MERS)라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전염력에 두려움을 넘어 공포를 느끼고 있다. 발생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그 정체도 잘 모를 뿐더러 백신도 마련되지 않은 질병인데다가 치사율이 높다 하며 매스컴이 키운 공포감은 삼시간에 온 나라를 덮치고 있다. SARS, 신종플루 등을 이겨낸 경험이 있었기에 초기대응에 느슨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열을 가다듬고 방역대책을 세워 메르스 전염종식에 집중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일 것이다. 정부나 매스컴이나 집중해야 할 것은 방법을 찾는 것이지, 문제를 키우고, 책임소재 운

문이다. 전의가 상실되어버린 병사가 들고 있는 총은 더 이상 무기일 수 없다. 단지 버거운 짐일 뿐이다. 의욕을 상실한 지휘관에게서 지휘봉을 뺏아야 한다고 목사님이 외치시는 이유도 의욕을 상실한 리더는 적보다 무서운 조직의 암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회의 오피니언을 리드하는 정부나 매스컴이 어떠한 자세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지 해답은 자명하다. 정확한 현실인식과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는 데 최우선의 방점을 두고 자신감으로 대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되는 현실은 온 나라에 닥친 문제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교회가 메르스가 두려워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악한 마귀가 춤을 추며

리의 믿음을 보신다. 바로 그 믿음이 문제의 흥해를 가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런 패일수록 두려워 뒤로 물러가 침묵에 빠질 것이 아니라 더욱 모이는데 힘쓰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문제만 보면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방법을 찾는데 집중하면 길이 보인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6.25 평화통일 기도성회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구.펜싱경기장)
6월 25일(목)저녁 8시 문의: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1:1~14)



성령받은 자의 사명이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낭독하신 이사야서 61장 1~2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10:38). 위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감당함에 있어 절대적인 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며 그를 따르던 자들에게 “볼찌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눅24:49)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문도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받기를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

라”(행1:8).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똑 잘라 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2:4~5).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에베소에 가서 믿는 신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행19:2) 물을 때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니



총회장 이초석 목사

라 ” 고 말하자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했던 것입니다.

12명쯤 되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에베소에서 열렬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안 믿는 옆집 아저씨를, 아줌마를, 내 가족을 교회에 데리고 온다는 개념 이상입니다. 세상을 쥐고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의 손에서 한 영혼을 빼내어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는 것입니다(엡6:12). 곧 악한 영적 존재들과 싸워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나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No, 무기가 좋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북한이 왜 핵무기 개발에 골몰하겠습니까? 강대국들이 신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옵니다. 이 은사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할 수도, 소유할 수도 없는 능력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고전12:8~11). 사도행전은 바로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나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기사와 표

적을 나타내며 하나님 말씀을 확증했던 것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행14:3). 빌립 집사도 기사와 표적을 보이며 전도하니 모든 무리가 그를 좇더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행8:5~6). 제가 국내든 해외든 집회를 열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목도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으니 베드로처럼 한 번에 수천 명씩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광택해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은 많은데 정작

어야 할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걸 보여주면 왜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보여줄 수가 없으니 안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요4:48).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에 먼저 불이 붙어야 무엇이든 태울 수 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7~18). 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면 가능합니다. 우리도 귀신을 쫓고 앓은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안수하여 들리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절로 전파됩니다. 예전 우리 교인들은 정말 귀신도 잘 쫓고 병도 잘 고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30년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의 부흥은 따 놓은 당상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가 계속 써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무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의 대상도 다양하고, 전도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불이 붙어야 불을 옮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성령의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먼저 불이 붙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된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전도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다

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2:1~4). 성령 받은 그들은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았다면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교회를 사수하라

극심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꿈꾼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나라. 더 길게 떠들 것도 없이 미국을 설명하는 말인데, 그 미국의 교회들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소위 차별금지법을 내세운 평등법이 겉으로 보기엔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 미국에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법안들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미국 교회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질 전망이다.

가장 단적인 예로 성(性)적 소수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동성연애 및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으로 인해 이제 교회 강단에서 목사 동성애를 좌악시하는 설교를 하면 벌금형이나 심지어는 징역형까지 당할 처지라 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조차 불법이 되는 현실인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종교 간의 차별금지를 내세운 법안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설교를 해도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교회에 대한 심대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교회가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없다면 이제 교회는 그야말로 생명력을 잃고 문화공동체 수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교회공동체의 와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영국교회를 비롯한 유럽교회는 그 옛날의 영화를 모두 잃고 관광 상품으로, 심지어는 술집으로, 이슬람 성전으로 변모해버린 실정이다. 현재 기독교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7, 80년대 부흥의 열기가 식

어버린 지금,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 국회에도 차별금지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정말 교회가 깨어 대처하지 않으면 미국 교회와 동일한 처지에 이를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것이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사회에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가치이긴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까지 동의해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나 대제국 로마붕괴의 단초가 되었던 성적 타락은 오늘날 구미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엄연히 실재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문화공동체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면, 악한 마귀의 밥이 되는 건 시간문제이다.

교회 사수의 책무는 일부 목회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교회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마땅하다.

지금은 신앙생활의 황금기라 할 만큼 신앙의 자유를 구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런 시기가 언제나 계속되리란 막연한 기대는 정말 위험하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목사님이 누누이 강조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천국생활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깨어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는 노력이 각별히 요구되는 때이다.

Henry Han

henry8829@naver.com

포기하지 말자

파가니니(Paganini, Niccolò)는 이탈리아 낳은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가 어느 날 공연장에서 연주를 하는데 연주 도중 줄이 하나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파가니니는 당황하지 않고 남은 세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알겠게도 또 줄 하나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줄은 두 줄,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연주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파가니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 다. 더욱 열정적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연주를 한 탓일까 줄이 하나 또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줄만 남은 겁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연주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모든 관객들은 일제히 그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곡을 연주하는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연주를 하다 줄이 끊어질 수도 있듯 살아가다보면 절망에 처할 수도 있

습니다.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족과 이별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 끊어지는 것도 힘든데 두 개의 줄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앞친 데 뺏친 격입니다. 그래서 연주를 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접기 전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두 줄로도 연주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한 줄로도 연주가 가능한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G선상의 아리아는 바이올린 네 번째 줄인 G선으로만 연주하는 바흐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하나의 줄만 사용할 뿐이지만 너무 아름다운 곡이지요.

다 끊어진 것 같지만, 당신에게 남은 한 줄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으로 연주하면 됩니다. 충분히 아름다운 연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한 줄이 세상의 줄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줄이라면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너무 일찍 낙심,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중심편집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25)



담배하라!

‘담배 한 개비’ 심리 전술

지금으로부터 약 60여 년 전, 한국 전쟁 당시에 중공군은 미군 포로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심리 전술을 썼다고 합니다.

먼저 중공군 심문관이 미군 포로에게 “미국은 완벽한가?”라고 묻습니다. 이 때 대부분의 미군 포로는 “어느 나라도 완벽하지는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심문관은 그에게 담배 한 개비를 건네며 “미국은 완벽하지 않다.”는 문장을 진술서에 쓸 것을 요구합니다. 몇 주 후 심문관은 다시 미군 포로에게 미국이 왜 완벽하지 않은지를 묻습니다. “미국은 완벽하지 않다.”고 적은 자신의 진술에 스스로 근거를 제시하며 보충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번에도 미군 포로들은 담배 한 개비의 혜택을 누리며, 어떤 면에서 미국이 완벽하지 않은지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적습니다. 이렇게 심문이 계속 진행될 때마다 진술서에는 왜 미국이 완벽하지 않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덧붙여집니다.

몇 달 후 중공군은 미군 포로들의 진술서 내용을 심리전에 활용합니다. 미군 포로들은 담배 한 개비씩을 얻으면서 자신들이

직접 쓴 내용이기 때문에 부인할 방법이 없고, 오히려 대다수가 그 내용을 적극 옹호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상대를 세뇌시키는 중공군의 이런 전술은 미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병사들로 하여금 자국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약화시키는 등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이 사례를 접하면서, 중공군의 심리 전술이 마치 악한 마귀의 전술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신가?” 그러면서 담배 한 개비처럼 언젠가는 불에 타 없어질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쾌락, 안정 등을 눈앞에서 흔들며 그로 하여금 진술서에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같은 말들을 쓰게 만듭니다. 그렇게 몇 번 마귀가 주는 담배 한 개비의 행복을 맛본 그는 점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옹호론자로 변질되고 맙니다.

물론 마귀가 대놓고 하나님의 성품이나 존

재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의 전술은 아주 은밀하게, 선악과처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또한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성공자들, 그리고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자신의 ‘포로’들을 보여주면서, 너도 이렇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시간과 그 자리, 그 마음을 적당히 타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때 마귀는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남편에게는 아내를, 삶의 현장에서는 가까운 친구와 동료들 마귀 편의 심문관으로 내세웁니다. 마귀의 심리 전술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의심하고, 멀리하고, 결국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주는 담배 한 개비는 곧 불에 타 없어지며, 완벽한 신 하나님의 심판 날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진술서를 확인하신다는 것을.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신앙논객::



귀를 기울이세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라는 말을 누구나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애인, 친구, 직장 동료, 교회 지체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잘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는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필자도 집안에 첫째로 속칭 ‘목석’같은 사람으로 다른 이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랑한다는 표현보다는 감사하다는 표현이 익숙했습니다. 어느 날 시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수만 가지 언어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주시며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한 여인에게 두 명의 남자가 사랑을 고백합니다. 한 명은 매일 같이 찾아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한 명은 어쩌다 한 번 찾아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누구의 고백을 받아주겠습니까? 하나님도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께 몇 번이나 사랑을 고백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보십시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불평중독

술과 담배가 서서히 우리 몸을 해친다면, 불평은 우리 영혼을 해칩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감사가 넘쳤던 일상을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하지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널려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트러블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남의 행동에는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꼭 있으니까요.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고 모두가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평한 다 해도 그 불평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잘못된 환경을 바꿔주진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할 때 그들의 입이 어떠한지.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마늘이 먹고 싶다고 불평, 마실 물이 없다고 짜증, 그것도 모자라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후 애굽에서 차라리 노예로 있다가 죽는 게 나았을 거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똑같이 광야생활을 하고 똑같이 가나안을

정탐을 했는데 누군가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요. 결국 답답한 문제, 나쁜 환경을 좋은 쪽으로 바꾼 건 불평한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늘 겹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은혜가 은혜인줄 아느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낮에는 덥지 않게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촛미 않게 불기둥으로 보호해주시던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됐을 때, 감사를 잃고 불평을 시작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이 은혜인 줄 알면 지금 조금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일용한 양식, 만날 수 있는 친구, 살아

있는 가족, 출근할 수 있는 직장,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찬양할 수 있는 입, 볼 수 있는 눈, 건강한 몸...,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과 나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뜨겁게 감사한가요? 아니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나요?

이제 우리, 불평을 끊는 연습을 해봅시다. 담배와 술처럼 쉽게 끊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마음속의 불평을 입으로 꺼내지 않는 것부터 해보는 겁니다. 조금 참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 대신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해보는 거지요. 좋은 날씨, 맛있는 간식, 돌아갈 수 있는 집..., 그렇게 불평의 자리에 감사가 대신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 믿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 믿어요.

자, 오늘 당신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신은혜
dopal0203@naver.com

나를 위한 십포!

작은 아이가 어느 날 아주 값비싼 자동차를 구입한 후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엄마! 이걸 제가 저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데 그런 고백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아들의 삶이 참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그래, 열심히 일한 년 충분히 자격 있어. 몇 년 후에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와서 같은 말할 수 있길 기도할게.” 라고요. “자신이 자신에게 당당하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삶!”, 참으로 신선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선물해 본 적이 있나요? 없다면 지치고 힘든 자신에게 선물 해보세요. 맛있는 음식으로, 사고 싶었던 아이템으로 말입니다. 모든 가능성은 내가 존재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존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Self-Respect, “스스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존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인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극히 큰 대업에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이 결국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되거든요. 그 소중한 자신이 지금 자존감을 잃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위로해주세요 “이제 그만 힘들어해! 년 충분히 노력했어! 그리고 너무 실망하지 마! 최선을 다 했으니. 내가 너를 응원해 준다고.” 말입니다.

자신을 격려해주고 자신에게 십포를 선물하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세요! “F인간이라도 A인간”이 될 수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이거든요.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Good News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3대째 목사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옥스퍼드 신학교를 졸업한 후 배를 타고 미국으로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배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 불안한 마음으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니 모라비안 교인들이 뱃전에 둘러 앉아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풍랑 가운데 가까스로 살아남아 미국 땅

을 밟았지만 미국 선교에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배에서 만난 모라비안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던진 질문이 마음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무척이나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깊은 밤에 예수님을 만나 진정으로 거듭난 후,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인도의 독립운동가로 비폭력 무저항주의운동을 전개했던 마하트마 간디는 성경을 즐겨 읽었으며 특

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롬10:9).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의 영생복락이 기다리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꺼지지 않는 불못,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홍삼 잘 알고 먹자

::나도 건강할 수 있다::

홍삼은 수삼을 장기간 증기로 찌서 건조시키는 제조과정에서 인삼에 없거나 미비한 성분들이 증폭되어 몇 배의 효능을 보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우리나라사람이 가장 애용하는 건강식품중 하나이다.

홍삼의 주요 효능으로는 원기회복, 면역력, 자양 강장 증진에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홍삼을 즐겨 찾는 사람들은 “홍삼을 먹고 면역력이 좋아져 잔병치레가 없어지고, 성인병과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사상체질에서는 인삼이나 홍삼을 복용하면 소화기관이 약한 소음인에게는 소화기능을 보충해주고, 면역력을 길러주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열이 많은 소양인이나 태양인이 홍삼을 복용하면 열이 너무 올라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부작용

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홍삼 복용에 좋은 체질과 나쁜 체질을 알아보자

좋은 체질

- 1. 과로하거나 신경을 쓰면 쉽게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
- 2. 소화기관이 평소 약한 경우
- 3. 몸이 차고 추위를 쉽게 타는 경우
- 4. 감기에 쉽게 걸려 회복이 더딘 경우
- 5. 홍삼을 복용후 곧바로 피로회복의 효과를 느끼는 경우

나쁜 체질

- 1. 소화력이 왕성하고 피로감이 적은 경우
- 2. 몸에 열이 많고 더위를 싫어하는 경우
- 3. 혈압이 높은 경우

4. 홍삼을 복용 후 두통이 있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경우

한의학에서는 “허(虛)한 즉 보(補)하고, 실(實)한 즉 사(寫)한다”는 원칙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병을 치료하는데 위장기능과 폐가 약하다면 홍삼으로 보완을 할 수 있으나, 위장이나 폐의 기능이 건강한 사람이 홍삼을 복용하게 되면 열이 과다하여 간 기능과 신장 기능에 큰 손실을 줄 수도 있다.

간혹 영양보조제나 홍삼 판매처에서 홍삼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지만 분명 본인 체질에 잘 맞는지를 판단하고 복용하여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더욱 잘 지키어 백세시대에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